

[정답] ④

바늘 한 쌈 = 24개

한약 한 제 = 20첩

오이나 가지 한 거리 = 50개

문 4.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 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春雨暗西池 /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羅幕 /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屏風 /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牆頭㉣杏花落 /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인공의 감정을 심화시켜주는 소재들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이 시에서 꽃이 진다는 것은 자신의 아까운 젊음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은 살구꽃을 말하는데, 살구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꽃이 진다는 상징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에서 꽃이 진다는 것은 비극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문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 너머 성권농(成勸農)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테고
아히야 네 권농 겨시냐 덩좌슈(鄭座首) 왔다 흥여라

- ①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 ②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 ④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정답] ②

이 시의 분위기는 약간 험령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친구의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누워 있는 쇼를 발로 차서 일으켜 세우고, 친구의 집으로 다짜고짜 갑니다. 격식을 차릴 리가 없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문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지루한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① 長廣舌	流言蜚語	辨明
② 長廣舌	流言非語	辯明
③ 長廣說	流言蜚語	辯明
④ 長廣說	流言非語	辨明

[정답] ①

[풀이]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썬씨 - 장광설(長廣舌)
아무 근거 없이 퍼진 소문 - 유언비어(流言蜚語)
어떤 잘못에 대해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 변명(辨明)

문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얗다.

- 정지용, <忍冬茶>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다.

[정답] ④

‘잠착하다’는 한 가지 일에 정신을 골똘하게 쓴다는 뜻입니다. 이 시의 분위기는 겨울날 눈이 가득한 산 속

에서 고요히 묻혀 지내는 시간을 그림처럼 그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문제 해결적인 사고를 할 분위기의 시가 아닙니다.

문 8.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 ① [주체 +], [객체 -], [상대 -]
- ② [주체 -], [객체 +], [상대 +]
- ③ [주체 +], [객체 -], [상대 +]
- ④ [주체 -], [객체 +], [상대 -]

[정답] ④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

이 문장의 주체는 ‘내가’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장의 상대방은 숙희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려면 서술어가 ‘드렸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장의 객체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 꽃을 주었다가 아니라 드렸다는 존대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문 9.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 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정답] ①

칸트는 예술의 미에 대해 자율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견해란 예술의 미가 다른 것에 예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술 감상 관점 중에 내재론, 절대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①입니다. ②, ④는 반영론, ③은 효용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10.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과적 나을 놈은 생겨나도 앓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결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여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메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똬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김유정, <만무방>중에서 -

- ① ㉠: 심심풀이
② ㉡: 안잠
③ ㉢: 몰매
④ ㉣: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정답] ②

새우잠은 몸을 새우처럼 구부리고 불편하게 자는 것입니다.

안잠은 여성이 남의 집에 거주하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 11.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내히 죠타 하고 님 슬흔 일 하지 말며
 님이 혼다 하고 義 아니면 좃지 말니
 우리는 天性을 직히여 삼긴 대로 흐리라

- ① 率性 ② 善交
③ 遵法 ④ 篤學

[정답] ①

시조의 종장에서 천성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①은 술성(率性)이라는 단어로서, ‘타고난 성질, 즉 천성을 좇는다’는 단어입니다.

문 12.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 ① 그 사람은 허구헌 날 팔자 한탄만 한다.
- ②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닫하게 되었다.
- ③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 ④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정답] ②

깨닫하다는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는 뜻의 표준어입니다.

① 허구헌 → 허구한

③ 뒤어내다 → 뒤져내다

④ 뉘연히 → 버젓이

문 13.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중에서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이 글에서 ‘일조에 함정에 빠뜨렸다’는 말은 하루 아침에 함정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조(一朝)가 맞습니다. 일조(日照)는 햇볕이 내리쬐다는 뜻입니다.

문 1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없는 농지거리, 별들의 잉잉 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ㄴ다, 는다’를 어간에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되지 않으면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단어를 나눠보면 흐드러지다, 충만하다, 없다는 형용사, 찍다, 설레다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문 15.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 가며 차츰 폭 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쫓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좇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

- ①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 ②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 ③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 ④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정답] ③

글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이 정상과학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어서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정답은 ③입니다.

④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통해 정상 과학의 시기는 패러다임이 정착된 시기이고, 패러다임은 세계관의 통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문 16.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어	예문
-----	----

죽이다	㉠
취다	㉡
어렵하다	㉢
진압하다	㉣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② ㉡: 그들은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③ ㉢: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정답] ③

어렵하다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유의어로 ‘잡다’를 쓰려면 “오늘 쇼핑에 쓸 돈을 10만원으로 잡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③의 문장은 어렵하다와 관련 없이 물건을 담보로 맡다는 뜻입니다.

문 17.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충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 ① 조간대에서 충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답] ②

①은 마지막 문단을 종합하면 알 수 있습니다.

- ③은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④는 첫 문단의 세 번째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문 18.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론: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ㄱ. 제조 원가 상승
 ㄴ. 고금리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ㄴ. 품질 개선 부족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ㄹ. 납기의 지연
 결론: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 ①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④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답] ①

이 개요는 전체적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글의 개요입니다.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분석하고, 그 해결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문 1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지요.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답] ③

㉔의 ‘당신’은 바로 앞 문장의 ‘할머니’를 대신하는 3인칭 재귀대명사입니다.

문 20.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㉑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㉒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㉓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㉔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㉕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① ㉑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 ② ㉒은 ㉑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 ③ ㉓은 ㉑, ㉒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 ④ ㉕은 ㉓, ㉔에 대한 근거이다.

[정답] ③

㉓의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문장은 ㉑, ㉒의 동물도 인간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문장을 부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총평

응시하셨던 수험생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번 시험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먼저, 4, 6, 11, 13번에 출제된 한자 문제가 모두 어려웠습니다. 이전의 지방직 시험에서는 한자 문제가 세 문제 정도 출제됐었는데, 한 문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수준이 하나도 쉬운 한자가 없이 다들 어렵게 나왔습니다. 특히 6번의 한자들은 상당히 비슷한 한자들을 교묘하게 섞어놓아서, 정답을 맞힌 수험생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시험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전 시험에 주로 나오던 맞춤법, 표준어 문제 비중은 축소되고, 수능처럼 문학, 비문학 지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8번 문제는 수능에 고정적으로 출제되지만, 공무원 시험에는 별로 출제되지 않던 작문 문제이고, 긴 분량의 독서 지문도 두 문제나 출제되어서 수험생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예전 공무원 시험은 2쪽에 문제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3쪽입니다. 앞으로 점점 시험지의 분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능과 점점 출제 경향이 닮아갈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고, 변별력을 강하게 주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 수험생들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